



보도시점 2026. 5. 3.(일) 12:00 배포 2026. 5. 3.(일) 10:00

# 세계은행 고위직에 한국인 진출

- 민진아 총괄, 세계은행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국장으로 선임 -

세계은행그룹(WBG: World Bank Group)은 민진아(한국 국적) 現 MIGA\*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(Head)을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(WBG Director, Market & Counterparty Risk)\*\*으로 선임하였다.(6.1일 부임)

\* 국제투자보증기구(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): 세계은행그룹 내 기구로, 對개도국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능

\*\*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리스크 관리, 자금 운용시 거래상대방(대형 은행 등) 관련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직위로, WBG CFO 산하

민진아 선임 국장은 20여년의 리스크관리 분야 전문 인재이다.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, '17년 MIGA에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으로 입사하였다. '21년부터는 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로 근무해왔다.

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은 조직의 핵심 고위관리직으로서, 그 간 한국인이 수임한 사례는 3차례\* 있었다. '25년 이후로는 세계은행 내에 한국인 부총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나, 금번 임명으로 한국인 고위직이 부총재 1명과 국장 1명으로 확대된 것이다. 지난 '24.7월에는 김상부 디지털·AI 부총재(Vice President, Digital & AI)가 최초의 세계은행 한국인 부총재로 임명된 바 있다.

\* 소재향 세계은행 양허성자금 국제협력 국장('14~'19년)  
추흥식 세계은행 투자운용 국장('16~'25년 2월)  
조현찬 IFC 아태지역 인프라·자원개발 국장('18~'19년)

정부는 그 간 우리 국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인 채용 및 고위직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. 초급전문가(JPO) 및 중견전문가(Mid-Career) 제도\*,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,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 및 다양한 채용 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
\* 공여국(정부) 부담으로 청년들을 해당기구에 2년간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제도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	책임자	과 장 박정현 (044-215-8710)
	개발금융총괄과	담당자	서기관 홍가영 (hongga00@korea.kr)



## 참 고

## 민진아 WBG 선임 국장 약력

□ 성 명 : 민진아 (Jeenah Min)

□ 국 적 : 한 국



□ 학 력

- 연세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
-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

□ 주요경력

- '21년 MIGA 신용·재무 리스크 부문 총괄(Head)
- '17년 MIGA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(Senior Officer)
- 골드만삭스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